

PA-103

충남 서해안 간척지에서 밥쌀용 및 가공용 품종의 생육, 수량 및 품질평가정종태^{1*}, 윤여태¹, 최현구¹, 이동재¹, 박인희¹¹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**[서론]**

최근 빈번한 가뭄발생에 의한 간척지에서의 염농도 증가로 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. 이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간척지에서 품종선발시험을 실시한 결과 몇가지 적응품종을 선발한바 있으며 선발한 벼에 대한 종자 생산 보급을 통해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. 본 시험은 본원에서 기 선발한 품종을 포함하여, 늦심기 적응 품종으로 선발한 다보 및 가공용쌀 품종인 보람찬 등 18개 품종을 시험하여 충남 서해안 간척지에서 적응하는 품종을 새롭게 선발하고자 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2018년 서산간척지 B지구(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69-12번지)에서 청호 등 18품종을 시험하였다. 4월 28일에 파종하여 5월 22일에 30×14cm 간격으로 3~5본씩 손이앙하였고 시비량은 N-P-K=18-4.5-5.7kg/10a로 질소분시비율은 기비:분얼기:최고분얼기:수비:실비 = 30:20:20:20:10% 처리하였다.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3반복으로 처리하였으며 주요조사방법은 농촌진흥청 연구조사 분석기준에 준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시험수행 중 염농도는 이앙 후 6월 초순에 0.7%까지 높아졌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며 7월 이후 다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. 시험품종들의 출수기는 다보가 8월 13일로 가장 빨랐으며 새신이 8월 28일로 가장 늦었다. m²당 영화수는 청해진미가 21천개로 가장 적었으며 가공용쌀인 보람찬은 44천개로 가장 많았다. 등숙비율은 29.3~53.6%까지의 범위로 매우 낮았으며 현미천립중 역시 15.2~18.6g의 범위를 보여 육성당시보다 크게 가벼워졌다. 쌀수량은 보람찬(416kg/10a) > 다보(391) > 해품(351) > 다청·황금노들(340) 순으로 나타났다. 완전미비율은 51.3~92.3%로서 남평벼가 가장 높았다. 단백질함량은 미품이 7.8%로 가장 낮았으며 해품은 9.5%로 가장 높았고, 토요윤기치는 미품(71.2) > 청호(70.6) > 남평(69.3) > 황금노들(68.4) > 삼광(66.5) 순으로 높았다. 엽고사, 백수, 퇴화영화, 갈변정도를 육안으로 평가한 내염성 정도는 황금노들, 청호, 해품, 신진백 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. 퇴화영화 및 백수 정도는 수량과 고도의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

*Corresponding author: Tel. 041-635-6050, E-mail. chts6991@korea.kr